THE BC

BEAUTIFUL CONSUMER, BETTER CULTURE

AUGUST 2013, VOL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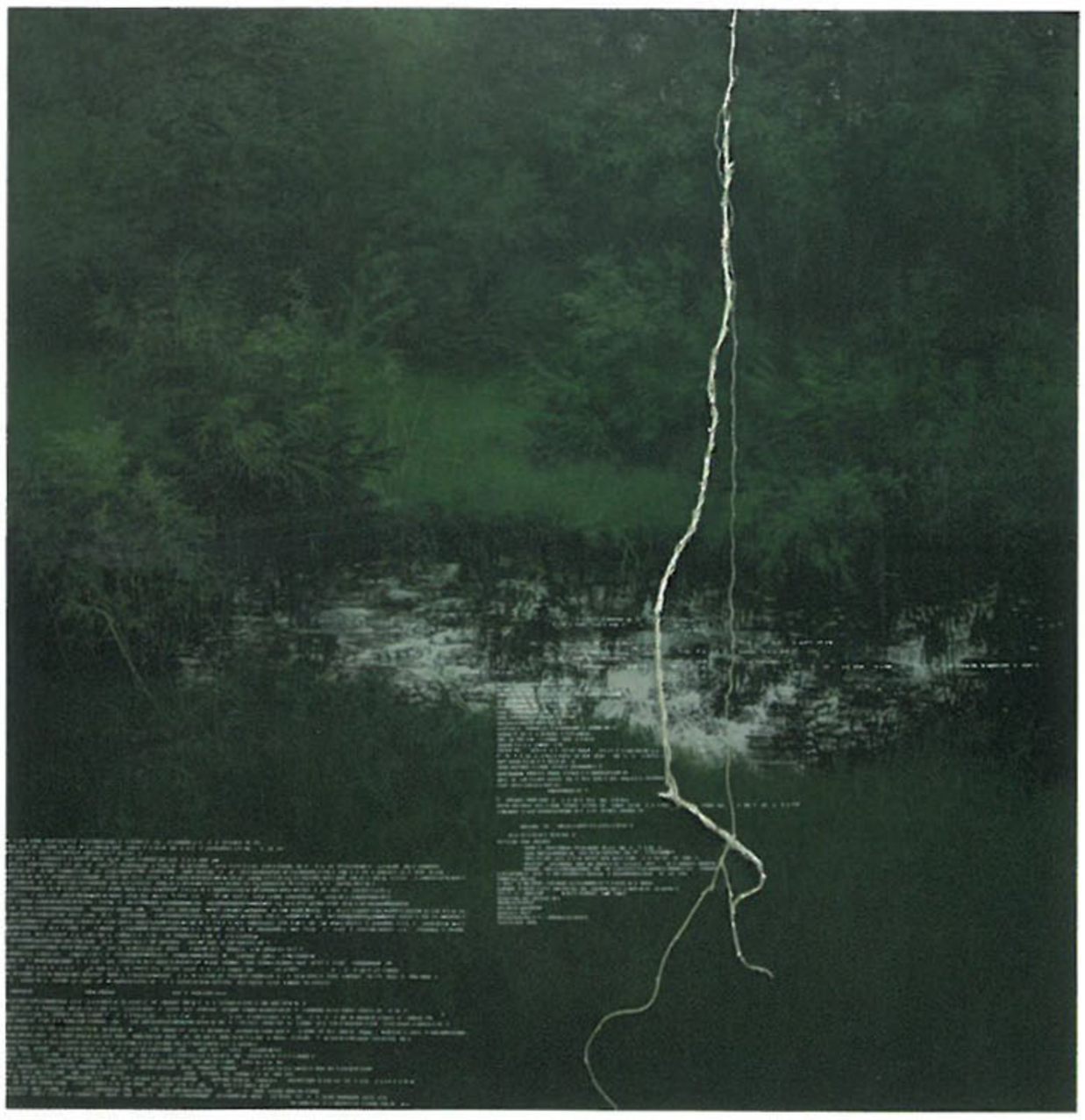
SPECIAL 01 ART

Healing Gallery

예술로 마음을 치유하다

파블로 피카소가 '예술의 목적이란 영혼에서 일상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술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속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에디터 홍혜원 **자료 제공** 국제갤러리 www.kukjegallery.com **도움말** 전민경 국제갤러리 PR 디렉터



<To Last-Oblivion>, 2012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260 x 235 cm

이기봉 作 향수

마치 낯선 숲에서 잠들었다가 막 깨어난 듯한 풍경. '21세기 몽환가'라고도 불리는 작가 이기봉의 작품 〈향수〉다. 이기봉은 섬세한 서정성과 독특한 개념을 바탕으로 쉼 없이 작업해온 중견 작가다. 그는 세계의 본질을 '생성과 소멸, 순환'의 구조로 보고 순환하는 세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라짐'이라는 주제를 탐구해왔다. 그가 표현하는 '사라짐'은 하나의 물리적 현상인 동시에 아름다움과 매혹, 판타지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캔버스와 플렉시 글라스 위에 펼쳐진 이미지 속에는 현실에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 묘하게 공존한다. 작품마다 뚜렷하게 느껴지는 안개의 느낌은 먼 것과 가까운 것, 정신과 물체라는 상반된 것들을 뒤섞는다. 그 실체를 잡기 힘든 몽환적 시공간은 물리적 차원을 넘은 초월의 세계로 관객을 이끈다.

<Nostalgia>, 2011 Acrylic, plexiglas and mixed media on canvas, 244.5 x 182 cm